

제24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개 회 식

아산시의회사무국

2023년 5월 12일(금) 10시 개식

제242회 아산시의회(임시회) 개회 식순

1. 개 식
1. 국기에 대한 경례
1. 애국가 제창
1.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1. 폐 식

(사회 : 의사팀장 이미란)

(10시00분 개식)
○**의사팀장 이미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기립)

(국기에 대한 경례)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힘차게 불러 주시기 바랍니다.

(애국가 제창)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김희영 의장님께서 개회사를 하시겠습니다.

○**의장 김희영** 존경하고 사랑하는 37만 아산시민 여러분!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시의회가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37만 시민과 함께 호흡하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경귀 시장님을 비롯한 26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열리는 이번 제24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전에 대하여 꼼꼼한 심사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책임감 있고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 의원님들의 의견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4월 초 홍성을 비롯한 충남 5개 시군 홍성, 금산, 당진, 보령, 부여에서 발생한 대형산불로 113명이 집을 잃었고 325억 원 넘는 규모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일상 회복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한편으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과 휴일을 반납해 가며 산불 피해 예방 활동에 힘써주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로 다행스럽게 산불 피해가 없었던 점에 대해 치하와 더불어 제62회 이순신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굵은 날씨에도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요즘 또한 일교차가 큰 환절기로 각종 질환이 유행하고 있으며 황사로 인하여 미세먼지가 매우 나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실외 마스크가 다시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충분한 수분, 휴식, 외출 후 손 씻기, 충분한 수면 취하기, 규칙적인 운동 등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느 때보다 근심 걱정 없고 따뜻한 정을 나누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아산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격려와 성원을 당부드리며, 37만 아산시민 모든 분들의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이미란** 이상으로 제24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10시 6분 폐식)